

파키스탄 지진 피해 및 영향

1. 피해 상황

□ 10월 8일(토) 오전,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파키스탄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.6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막대한 인적,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.

- 이번 지진은 지질학상의 판구조론(theory of technical plates)상의 지각 충돌에 의한 것으로 인도, 파키스탄이 위치한 인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.

- 학자들은 인도 북부, 파키스탄 접경지역에서의 강진 가능성을 주장하여 왔는데, 실제로 동 지역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여 왔음.

- 2001년 인도 구자라트 주 진도 7.9의 강진 : 1만 4,000명 사망
- 1993년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 지진 : 1만여 명 사망
- 1905년 인도 대지진 : 1만 9,500명 사망

※ 파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의하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**한국인 및 우리기업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**

2 파키스탄의 경제 및 정치에 미치는 영향

□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

- 적극적인 대미협조정책을 취해온 파키스탄은 그 대가로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적 지원, IMF의 차관공여, 파리클럽과 채무재조정 합의 등의

가시적 성과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였음.

- 2004년중 6.4% 경제성장률 시현, 2005년중 8.4%의 고도성장 전망
- 이번 지진이 발생한 카슈미르 지역 등은 대부분이 산악지역이고 오랜 카슈미르 분쟁으로 제조업 등의 경제적 기반이 거의 없는 지역이므로 지진 피해가 파키스탄 경제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-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출 확대 및 최근 국제 고유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자극,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, 중장기적으로는 피해 복구 수요에 의한 경제 활성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□ 무샤라프 대통령의 정치적 능력이 시험받을 듯

- 지진피해에 따라 오랜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구호 활동을 통해 인도와의 관계 개선도 기대됨.
- 독재적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무샤라프 정권의 친미정책으로 야당 및 이슬람 정당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, 무샤라프 대통령이 이번 지진 사태를 잘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치사회적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.